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3.(월) 09:00 < 11.23.(월) 석간 > 배포 2026. 11. 20.(금)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해 전 부처 역량 결집 「양극화 대응 TF」 산업·기업반 1차 회의 개최

- 산업·기업간 격차 완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 및 정책과제 본격 발굴
- 국가 대규모 프로젝트 내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수출 1조불 성장의 결실을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고루 확산 추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11월 23일(월) 박동일 산업부 차관,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공동 주재하에 관계부처,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양극화 대응 TF」 산업·기업 격차완화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11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과 11월 12일(목) 개최한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제1차 회의의 후속 회의로, 5대 핵심 분야* 중 산업·기업 분야의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되었다.

* ①노동시장, ②산업·기업, ③지역, ④세대, ⑤사회 격차 완화

최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거시경제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이러한 성과가 산업·기업 전반으로 충분히 확산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와 산업부는 산업·기업간 격차를 완화하고 대기업·중소기업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관계부처와 함께 발굴해 나간다. 특히, 국가 대규모 프로젝트 내 중소기업 참여 확대, 산업 전반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해 검토할 계획이다.

앞으로 산업·기업 격차완화반은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각 부처, 국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간다. 과제의 추진 시기와 성격에 따라 ❶즉시 추진, ❷내년 중 제도개선 및 추진, ❸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과제 등으로 체계화하고, 향후 총괄반 보고 및 논의를 거쳐 부처 간 합의된 핵심과제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박동일 차관은 “최근 우리나라는 사상 처음으로 수출 1조불을 돌파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강화하는 한편 앵커기업 주도의 기술개발·상생 등을 통해 성장의 결실이 산업생태계 전반에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산업·기업 간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성장산업의 성과가 일부 대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부처 및 국책연구기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 단계와 여건에 맞는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우성훈	(044-203-4210)
		담당자	사무관	박찬서	(044-203-4215)
			주무관	김진호	(044-203-4217)
중기부	기획조정실 기획총괄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형철	(044-204-7420)
		담당자	사무관	전진섭	(044-204-7324)
			사무관	장희수	(044-204-7336)
			주무관	임혜진	(044-204-733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